

2016. 4. 9. 국가직 9급 국어 총평 및 해설

핵심만 콕콕! 만남이 곧 합격이다! **미소국어 강경욱**

1. 총평

2016년 국가직 시험은 작년과 같이 지극히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공부한 학생과 공부하지 않은 학생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국어규범과 관련된 것이 5문항 출제되어 작년보다 1문항 줄었다. 구체적 영역은 외래어 표기, 보조사, 띄어쓰기, 표준어, 문장의 종류 등이다. 수업시간에 모두 다룬 내용이라 까다로운 문제는 없었다. 앞으로도 수험생들은 국어문법을 중심으로 한 규범을 세밀하게 정리해 두는 학습태도가 필요하다.

읽기와 쓰기는 작년보다 2문제 많은 5문제가 출제되었다. 지문은 짧고 평이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수업시간에 강조했듯이 평소에 생소한 지문을 지속적으로 읽는 습관을 들인다면 이 영역은 쉽게 정복할 수 있다.

문학은 기형도의 '엄마 걱정', 천상병의 '귀천', 이규보의 '경설', 염상섭의 '만세전' 등 4문제가 출제되었다. 모두 익숙한 작품으로 문학의 기초 감상법을 충실히 익힌 사람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사려된다. 수험생은 이 작품을 배웠다 배우지 않았다고 접근하는 학습법을 버리고 영역에 따른 기초 감상법을 충실히 익혀 어떤 작품이 출제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어휘는 작년과 같이 4문항이 출제되었다. 한자성어와 한자, 순우리말과 한자어 등 고르게 출제되었다. 수업시간에 모두 다룬 어휘가 출제되어 그리 체감 난도는 어렵지 않았다. 평소에 지속적으로 어휘량을 늘리는 학습법을 권하고 싶다.

예년과 달리 말하기 영역이 2문제 출제되었는데, 새로운 문제 유형이라 할 수 있지만 독해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 새롭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사려된다.

결론적으로 2016년 국가직 시험은 수험생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한자가 출제되었으나, 익숙한 한자라 그리 까다롭지 않아 체감 난도는 아주 낮은 시험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난도 상인 문제는 없었다. 난도 중인 문제가 16문제, 난도 하인 문제가 4문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최상위권 학생들은 만점을 맞아야 하며, 실수를 감안하더라도 국어 점수는 95점 정도는 나와야 하는 정말 쉬운 시험으로 분석된다.

2016 미소 강경욱 선생의 9급 국가직 해설

1. 외래어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flash - 플래시
- ② shrimp - 쉬림프
- ③ presentation - 프레젠테이션
- ④ Newton - 뉴턴

답) ②. [난이도 하, 외래어 표기] - 예상한 문제 유형
쉬림프. 'shrimp[ˈrɪmp]'에서 [ʃ]는 영어의 경우 자음 앞에서는 '슈'로 적어야 한다.

미소 적중

- 2016 All-Kill 국어다잡기(1~2월 강의): 352번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나는 것이 포함된 것은?

- ① 리모컨, 커닝, 뷔페
- ② 블라우스, **쉬림프**, 껌
- 짜장면, 쿵푸, 난센스
- ④ 할리우드, 바통, 옐로

미소 적중

- 2016 All-Kill 국어다잡기(1~2월 강의): 모의 3회 10번
<보기> 대화의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기>

엄마: 지호야, 오늘 저녁 반찬은 달걀 후라이야, 괜찮지?
지호: 엄마, 후라이가 아니라 프라이예요.
엄마: 나는 후라이가 더 말하기 편한 것 같은데? 아무튼 달걀 프라이를 해야 되니까 선반 위에 있는 후라이 팬 좀 꺼내 줘.
지호: 알았어요. 근데 프라이팬이라고 해야 돼요. 오늘 국어 시간에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 배웠거든요.
엄마: 그래! 그런데 그건 무슨 원칙 때문에 그런 거니?
지호: 그건 (㉠) 때문이에요.
엄마: 아, 그래, 좀 더 쉽게 설명해 봐.
지호: 그러니까 영어의 'f'는 모두 '(㉡)'으로만 적어야 한다는 거예요.
엄마: 그렇구나. 그럼 다른 예로는 뭐가 있니? 오늘 확실하게 공부해 두자.
지호: (㉢) 등이 있어요.
엄마: 똑똑한데, 우리 아들 화이팅이다!!
지호: 엄만 참,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	㉡	㉢
①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하기	ㅍ	파이팅, 플래시
②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하기	ㅎ	하이킹, 하이컬러
●	외래어의 한 음운은 모두 같은 기호로 적어야 하기	ㅍ	파일, 플래시
④	외래어의 한 음운은 모두 같은 기호로 적어야 하기	ㅂ	바나나, 버스
⑤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해서 적어야 하기	ㅍ	파티, 파트타임

미소 적중

- 2016 동형 문제다잡기(3~4월 강의): 11회 9번
'타겟'을 인터넷의 '한글 맞춤법 검사기'를 실행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도움말 정보>에 근거할 때, 외래어 표기가 올바르게 쓰인 것은?

틀린 단어	대치어	도움말 정보
타겟	타깃	<한글 맞춤법 오류>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습니다. ① 장음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예) team → 팀(○)/티임(×) ②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예) book → 북(○)/북(×) ③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예) paris → 파리(○)/빠리(×) ④ 어말의 [ʃ]은 '시'로 적는다. 예) flash → 플래시(○)/플래쉬(×) ⑤ 파찰음 표기에서 이중 모음은 쓰지 않는다. 예) vision → 비전(○)/비전(×) ⑥ 외래어 표기는 최대한 외래어 발음에 가깝게 한다. 예) bonnet → 보닛(○)/본넷(×)

- ① 이번 공연은 '째즈'의 향연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 ② 다섯 사람씩 두 편으로 나뉘어 상대방의 골대에 공을 던져 넣어 득점을 겨루는 경기를 '바스켈 볼'이라고 한다.
- ③ 화가는 '파렛트'에 그림물감을 짜내어 풀을 섞어서 필요한 색을 만들어 그림을 그린다.
- 영수는 아침마다 솔처럼 생긴 '브러시'를 머리를 빗고 등교한다.

미소 적중

- 2016 출논문 기출다잡기(11~12월 강의): 27회 2번
다음 중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표기된 낱말들로만 이루어진 것은?

- ① **뉴턴**, 슬로바키아, 도이칠란드, 링거
● 도스토옙스키, **플래시**, 로브스터, 버저
③ 콘사이즈, 파일, 리더십, 케첩
④ 코즈모폴리턴, 스프링쿨러, 콘셉트, 카펫
⑤ 앙코르, 타깃, 심포지움, 플루트

2. 밑줄 친 보조사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렇게 천천히 가다가는 지각하겠다.
-는: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냄
② 웃지만 말고 다른 말을 좀 해 보아라.
-만: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냄
③ 단추는 단추대로 모아 두어야 한다.
-대로: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냄
④ 비가 오는데 바람조차 부는구나.
-조차: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을 나타냄

답) ①. [난이도 하, 보조사] - 예상한 문제 유형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일부 연결 어미 뒤에 붙어)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에 해당한다.

미소 적중

- 2016 출논문 기출다잡기(11~12월 강의): 17회 10번
밑줄 친 것 중 보조사인 것은?

- ① 이 물건은 시장에서 사 왔다.
② 개는 늑대와 비슷하게 생겼다.
③ 그것은 교사로서 할 일이 아니다.
● 나는 거칠 것 없는 바다의 사나이이다.

미소 유형적중

- 2016 동형 문제다잡기(3~4월 강의): 13회 7번
<보기>의 문장에 사용된 조사 ‘마저’, ‘조차’, ‘까지’에 공통적으로 내재된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브루투스, 너마저도 나를 배신하느냐!
- 수업 태도도 나쁜데 대답 **조차** 불손하다.
- 밤도 늦었고 비까지 내리니 하루 더 묵고 가거라.

- ①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② 시간적으로 매우 빨리 이루어짐.
●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
④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

3. 다음의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김만중의 ‘사씨남정기’에서 사씨는 교씨의 모함을 받아 집에서 쫓겨난다. 사악한 교씨는 문객인 동청과 작당하여 남편인 유한림마저 모함한다. 그러나 결국은 교씨의 사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유한림이 유배지에서 돌아오자 교씨는 처형되고 사씨는 누명을 벗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 ① 교언영색(巧言令色) ② 절치부심(切齒腐心)
③ 만시지탄(晩時之歎) ④ 사필귀정(事必歸正)

답) ④. [난이도 하, 한자성어] - 예상한 문제 유형

고전 소설의 전형적인 주제인 ‘권선징악(勸善懲惡)’이 나타난 작품이다. ‘모든 일이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간다.’인 ‘사필귀정(事必歸正)’이 적절하다.

- ① 아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
②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③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미소 적중

- 2016 All-Kill 국어다잡기(1~2월 강의): 829번
필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말은?

- ① 시대의 흐름을 고려할 때, **사필귀정(事必歸正)**의 현상이다.
② 인쇄 매체의 독자성을 고려할 때, 기우(杞憂)에 불과한 생각이다.
③ 대세의 흐름을 잘못 파악한 시대착오적(時代錯誤的)인 발생이다.
④ 영상 매체의 익숙한 세대의 생각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의견이다.

4.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연구원이 어떤 실험을 계획하고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둘씩조를 지어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파트너는 다른 작업장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일을,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 할 것입니다. 이번 실험에 대한 보수는 각 조당 5만 원입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작업을 마치자 연구원은 참가자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각각 2만 원, 2만 5천 원, 3만 원의 보수를 차등 지급하면서, 그들이 다른 작업장에서 파트너가 받은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 후 연구원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몇 가지 설문을 했다.

‘보수를 받고 난 후에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나누어 받은 돈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연구원은 설문을 하기 전에 3만 원을 받은 참가자가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3만 원을 받은 사람은 2만 5천 원을 받은 사람보다 덜 행복해 했다. 자신이 과도하게 보상을 받아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2만 원을 받은 사람도 덜 행복해 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받아야 할 만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① 인간은 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 더 행복해 한다.
- ② 인간은 남보다 능력을 더 인정받을 때 더 행복해 한다.
- ③ 인간은 타인과 협력할 때 더 행복해 한다.
- ④ 인간은 상대를 위해 자신의 몫을 양보했을 때 더 행복해 한다.

답) ①. [난이도 중, 읽기] - 예상한 문제 유형

3 만 원을 받는 사람은 과도한 보상을 받았다는 생각에 덜 행복했고, 2 만 원을 받은 사람들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덜 행복하다고 느꼈다. 그러므로 이 글을 통해 독자는 더 받지도 또 덜 받지도 않은 인간은 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 더 행복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5. 다음 글의 필자가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로마는 ‘마지막으로 보아야 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장대한 로마 유적을 먼저 보고 나면 다른 관광지의 유적들이 상대적으로 왜소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의 자부심이 담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제일 먼저 로마를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문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가장 진지하게 반성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문명관(文明觀)이란 과거 문명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문명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대로 새로운 문명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① 여행할 때는 로마를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좋다.
- ② 문명을 반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치관이 필요하다.
- ③ 문화 유적에 대한 로마인의 자부심은 본받을 만하다.
- ④ 과거 문명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야 한다.

답) ②. [난이도 중, 읽기] - 예상한 문제 유형

‘로마는 문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가장 진지하게 반성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를 참조하면 된다. 즉 문명을 반성적으로 볼 수 있는 문명관(가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로마’를 먼저 보라는 것이다.

6.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평화로운 시대에 시인의 존재는 문화의 비싼 장식일 수 있다. 그러나 시인의 조국이 비운에 빠졌거나 통일을 잃었을 때 시인은 장식의 의미를 떠나 민족의 예언가가 될 수 있고, 민족혼을 불러일으키는 선구자적 지위에 놓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스스로 군대를 가지지 못한 채 제정 러시아의 가혹한 탄압 아래 있던 폴란드 사람들은 시인의 존재를 민족의 재생을 예언하고 굴욕스러운 현실을 탈피하도록 격려하는 예언자로 여겼다. 또한 통일된 국가를 가지지 못하고 이산되어 있던 이탈리아 사람들은 시성 단테를 유일한 ‘이탈리아’로 숭앙했고,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잔혹한 압제 하에 있었던 벨기에 사람들은 베르하렌을 조국을 상징하는 시인으로 추앙하였다.

- ① 시인의 생명(生命) ② 시인의 운명(運命)
- ③ 시인의 사명(使命) ④ 시인의 혁명(革命)

답) ③. [난이도 중, 읽기] - 예상한 문제 유형

‘그러나 시인의 조국이 비운에 빠졌거나 통일을 잃었을 때 시인은 장식의 의미를 떠나 민족의 예언가가 될 수 있고, 민족혼을 불러일으키는 선구자적 지위에 놓일 수도 있다.’를 참조하면 된다. 민족의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인이므로 ‘시인의 사명’이 적절하다.

7. ㉠~㉣을 시의 흐름에 맞게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 찬밥처럼 방에 담겨
㉢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 금 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 기형도, 엄마 걱정

- ① ㉠ :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간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 있다.
- ② ㉡ : 관심 받지 못해 외로운 상황이 나타나 있다.
- ③ ㉢ : 공부하기 싫은 어린이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 ④ ㉣ :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이 나타나 있다.

답) ③. [난이도 중, 현대시]- 예상한 문제 유형

천천히 한 숙제가 끝나도록 어머니는 안 오시고 기다림은

계속된다. 이것은 엄마를 기다리는 긴 시간을 표현한 것이 지 일상적으로 숙제하기를 싫어하는 어린이의 마음과는 관련이 없다.

미소 내공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회상적, 감각적, 서사적

어조: 엄마를 걱정하고 기다리는 애절한 어조, 추억을 떠올리는 그리운 어조

심상: 시각, 촉각, 청각적 심상

구성:

1연 - 어머니의 고된 삶과, 혼자 남아 어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화자의 불안한 마음

2연 - 어린 시절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

표현: 감각적 심상을 통해 외롭고 두려웠던 어린 시절의 가난 체험을 드러냄.

제재: 가난했던 어린 시절

주제: 장에 간 엄마를 걱정하고 기다리던 어린 시절의 외로움. 시장에 간 엄마를 애뜻하게 기다리는 마음.

8. 밑줄 친 단어가 상징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것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돌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 천상병, '귀천(歸天)'

- ①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 ② 반짝이는 나뭇잎은 어린 아이들의 웃음 같다.
- ③ 잠을 깨고 나니 고된 인생도 한바탕 꿈처럼 여겨졌다.
- ④ 앓매인 삶보다는 구름 같은 삶이 훨씬 좋을 때가 있다.

답) ③. [난이도 중, 현대시]- 예상한 문제 유형

인생을 스러지는 이슬 같은 존재로 표현했다. 즉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한바탕 꿈 같은 이미지가 '이슬' 인 것이다.

- ① 자신을 위한 헌신
- ② 경쾌한 자연의 이미지
- ④ 자유로움

미소 내공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시각적, 서술적

어조: 내면적, 독백적 어조

표현: 미련과 집착을 버리고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의 정신을 세속을 초월한 달관의 세계와 조화시킴

제재: 귀천歸天

주제: 삶에 대한 달관과 죽음에 대한 체관

9. 두 한자어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광정(匡正) - 확정(廓正)
- ② 부상(扶桑) - 함지(咸池)
- ③ 중상(中傷) - 비방(誹謗)
- ④ 갈등(葛藤) - 알력(軋轢)

답) ②. [난이도 중, 어휘] - 예상한 문제 유형

'부상(扶桑)'은 해가 뜨는 곳, '함지(咸池)'는 해가 지는 곳을 말한다. '반의 관계'인 단어다. 나머지는 모두 유의어(類義語)에 해당한다.

- ① 광정(匡正): 잘못된 것이나 부정(不正) 따위를 바로잡아 고침.
확정(廓正): 잘못을 바로잡음.
- ③ 중상(中傷):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킴.
비방(誹謗):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함.
- ④ 갈등(葛藤):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알력(軋轢): 수레바퀴가 삐걱거린다는 뜻으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사이가 안 좋거나 충돌하는 것을 이르는 말.

10. 다음 대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행자: 오늘은 우리의 전통 선박에 대해 재미있게 설명한 책인 우리나라 배에 대해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우리나라 전통 선박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설명한 책 내용이 참 흥미롭던데요,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김 교수: 판옥선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혹시 판옥선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진행자: 자세히는 모르지만 임진왜란 때 사용된 선박이라고 들었습니다.

김 교수: 네, 판옥선은 임진왜란 때 활약한 전투함인데, 우리나라 해양 환경에 적합한 평저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진행자: 아, 그렇군요. 교수님, 평저 구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 교수: 네, 그건 밑 부분이 넓고 평평하게 만든 구조입니다. 그 때문에 판옥선은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는 물론, 썰물 때에도 운항이 가능했죠. 또한 방향 전환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결국 섬이 많고 수심이 얕으면서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우리나라 바다 환경에 적합한 구조라는 말씀이시군요?

김 교수: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선조들의 지혜가 참 대단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판옥선이 전투 상황에서는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 궁금한데,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① 진행자는 김 교수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 ② 김 교수는 진행자의 의견에 동조하며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 ③ 김 교수는 진행자의 부탁에 따라 소개할 내용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④ 진행자는 김 교수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질문을 하고 있다.

답) ②. [난이도 중, 말하기-대담] - 예상한 문제 유형

진행자가 김 교수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견해를 수정한 내용은 찾을 수가 없다.

- ① 아, 그렇군요. 교수님, 평저 구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③ 판옥선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혹시 판옥선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 ④ 자세히는 모르지만 임진왜란 때 사용된 선박이라고 들었습니다.

11.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그는 우리 시대의 스승이라기 보다는 자상한 아버지이다.
- ② 그는 황소 같이 일을 했다.
- ③ 하루 종일 밥은 커녕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 ④ 내 모자는 그것하고 다르다.

답) ④. [난이도 하, 띄어쓰기] - 예상한 문제 유형

- ① 그는 우리 시대의 스승이라기보다는 자상한 아버지이다.
- 조사는 몇 개이든 붙여 써야 한다.
- ② 그는 황소같이 일을 했다.
- ‘같이’는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 ③ 하루 종일 밥은커녕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 ‘은커녕’도 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미소 적중

- 2016 All-Kill 국어다잡기(1~2월 강의): 390번

다음 중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사람들은 “사람 살려!” 하고 울부짖으면서 마구 뛰어 나왔다.
- ② 미소가 백 원짜리 특강을 했다.
- ③ 그는 누구 보다도 걸음이 빠르다.
- 그녀는 남편의 무사 귀환을 위해 불공 드렸다.

미소 적중

- 2016 동형 문제다잡기(3~4월 강의): 4회 5번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나무커녕 풀도 없는 황무지가 저렇게 옥답으로 변했다고.
- ② 사람들은 “사람 살려!” 하고 울부짖으면서 마구 뛰어 나왔다.
- ③ 얼음장 같이 차가운 방바닥에 몸을 눕혔다.
- 2015년에 떨어져 나는 다시 도전할 수 밖에 없었다.

미소 적중

- 2016 All-Kill 국어다잡기(1~2월 강의): 371

다음 중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문장은?

- ① 박근혜는 제 18대 대통령이다.
- 오전 여섯시 십이분에 경찰은 철거민들에게 물대포 살수를 시작하였다.
- ③ 얼음장 같이 차가운 방바닥에서 잠자리를 마련했다.
- ④ 재개발 지역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미소 적중

- 2016 All-Kill 국어다잡기(1~2월 강의): 407번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그 해 가을, 나는 매일매일 유미의 집에 들렀다.
- 고목은 몇 백 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 ③ 정말 요정같이 아름답구나!
- ④ 바보 같은 짓 좀 그만해!

미소 적중

- 2016 All-Kill 국어다잡기(1~2월 강의): 376번

다음 중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우리 민족은 감각적이고 낙천적 성향이 있다.
- ② 공무원이 못 된 것을 비관하고 있다.
- ③ 사람들은 그에게 충고하기 는커녕 비웃기만 했다.
- 그는 화가 못지 않게 그림을 잘 그린다.

미소 적중

- 2016 All-Kill 국어다잡기(1~2월 강의): 403번

다음 중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문장은?

- ① 착하기는 **커녕** 알뜰기만 하다.
- ②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기르기는 다르다.
- 이걸 기억해두어 보아라.
- ④ 그녀는 꽤 큰 집에 살았다.

미소 적중

- 2016 All-Kill 국어다잡기(1~2월 강의): 432번

다음 중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문장은?

- ① 사람은 안 보면 그 뿐이다.
- ② 큰소리만 치더니 성공은 **커녕** 가족 조차 돌보지 못했다.
- 자네는 글씨를 참 잘 쓰네그러.
- ④ 모른 체 하고 있을 수 있니?

미소 적중

- 2016 All-Kill 국어다잡기(1~2월 강의): 439번

다음 중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공부를 하기 **는커녕** 놀기만 한다.
- ② 오늘은 밥을 먹을만하다.
- 형 만한 아우는 없는 법이다.
- ④ 죽을망정 아침하지는 않겠다.

12. 밑줄 친 어휘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미**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 해미: 바다 위에 낀 짙은 안개
- ② 이제는 **안갯음**할 때가 되었다.
- 안갯음: 남에게 해를 받은 만큼 저도 그에게 해를 다시 줌
- ③ 그 울타리는 오랫동안 살피지 않아 영 **불쌍**이 아니었다.
- 불쌍: 남에게 보이는 체면이나 태도
- ④ **상고대**가 있는 풍경을 만났다.
- 상고대: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

답) ②. [난이도 중, 어휘 - 우리말] - 예상한 문제 유형

- 안갯음: 자식이 커서 부모를 봉양하는 일.
- 양갯음: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줌.

13. 밑줄 친 어휘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그는 얼금얼금한 얼굴에 **콧망울**을 벌름거리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 ② 그 사람 **눈초리**가 아래로 축쳐진 것이 순하게 생겼어.
- ③ 무슨 일인지 **콧밥**이 흑 달아오르면서 목덜미가 저린다.
- ④ 등산을 하고 났더니 **장딴지**가 땅긴다.

답) ①. [난이도 중, 표준어] - 예상한 문제 유형

코끝 양쪽으로 둥글게 방울처럼 내민 부분은 ‘콧방울’ 이 표준어다.

미소 적중

- 2016 All-Kill 국어다잡기(1~2월 강의): 261

다음 중 맞춤법 규정에 맞지 않은 것은?

- ① 이여백은 발목을 접질려서 복사뼈가 아프다고 엄살을 하는 것이었다.
- **콧망울**이 크고 두둑해야 복이 있다고 한다.
- ③ 칼 쓰는 솜씨며 심지어는 손짓 발짓 모두가 한가락씩 긴다 난다 하는 재주를 지녔다.
- ④ 나는 그 일이 엄두가 나지 않는다.

14.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맑고 아른아른한 거울을 좋아하겠지만, 얼굴이 못생겨서 추한 사람은 오히려 맑은 거울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은 많기 때문에, 만일 맑은 거울 속에 비친 추한 얼굴을 보기 싫어할 것인즉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깨쳐 버릴 바에야 먼지에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먼지로 흐리게 된 것은 결뿐이지 거울의 맑은 바탕은 속에 그냥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뒤에 닳고 갈아도 닳지 않습니다. 아! 옛날에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함이었지만, 내가 거울을 보는 것은 오히려 흐린 것을 취하는 것인데, 그대는 이를 어찌 이상스럽게 생각합니까?" 하니 나그네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 이규보, '경설' 중에서

- ① 잘생긴 사람이 적고 못생긴 사람이 많다는 말에서 거사의 현실인식을 알 수 있다.
- ② 용모에 대한 거사의 논의는 도덕성, 지혜, 안목 등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후 거울을 닳겠다는 말에서 거사가 지닌 처세관을 엿볼 수 있다.
- ④ 이상주의적이고 결백한 자세로 현실에 맞서고자하는 거사의 높은 의지가 드러나 있다.

답) ④. [난이도 중, 고전수필] - 예상한 문제 유형

결은 흐리더라도 맑은 본성은 때 묻지 않은 거울처럼 사물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말한 '설(說)' 이다. 제시된 글 어디에서도 결백한 자세로 현실에 맞서고자하는 의지는 찾을 수 없다.

미소 내공

성격 관조적, 교훈적, 철학적

진행 방식 문답식

주제 사물의 심층을 이해하는 통찰력. 삶에 대한 관조적 자세.

출전 '동무선'

▶ 설(說)

설(說)은 한문 문체의 한 종류로 사물의 이치를 풀이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 문학이 장르이다. 설은 논(論)보다는 약간 평이하고 상세하게 해설하여 독자를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은 사물 또는 사건의 이치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문학으로, 다분히 우의적, 비유적, 교훈적 성격을 지닌다. 내용상 교훈적 수필과 유사하고 볼 수 있다.

미소 지문적중

- 2016 출론문 기출다잡기(11~12월 강의): 12회 3번
다음 <보기>에 나타난 인식과 유사한 구절은?

어떤 거사가 거울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먼지가 끼어서 흐릿한 것이 마치 구름에 가리운 달빛 같았다. 그러나 그 거사는 아침저녁으로 이 거울을 들여다보며 얼굴을 가다듬곤 하였다. 한 나그네가 거사를 보고 이렇게 물었다.

“㉠거울이란 얼굴을 비추어 보는 물건이든지, 아니면 군자가 거울을 보고 그 맑은 것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사의 거울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리고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항상 그 거울에 얼굴을 비춰 보고 있으니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거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맑고 아른아른한 거울을 좋아하겠지만, 얼굴이 못생겨서 추한 사람은 오히려 맑은 거울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맑은 거울 속에 비친 추한 얼굴을 보기 싫어할 것인즉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깨쳐 버릴 바에야 먼지에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먼지로 흐리게 된 것은 겉뿐이지 거울의 맑은 바탕은 속에 그냥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만일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뒤에 닮고 같아도 늦지 않습니다. 아! ㉤옛날에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함이었지만, 내가 거울을 보는 것은 오히려 흐린 것을 취하는 것인데, 그대는 어찌 이를 이상스럽게 생각합니까?”

자본주의 체제에서 모든 계층의 사람이 똑같이 많이 벌고 잘살기를 바랄 수는 없다. 어느 정도의 소득 격차는 경쟁을 유발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 따라서 우리와 같은 양극화 현상의 심화 추세를 그대로 방치한 채 자연 치유되도록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동안 단편적인 대책이 나오기는 했으나 ㉡ 떡 먹은 입 쓸어 치듯 개선은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어 가고 있음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저소득층 소득 향상을 통한 근본적인 빈부 격차 개선책을 제시하여 빈자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렇다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욕하거나 ㉢ 경원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기업 투자와 내수 경기를 일으키는 일이 긴요하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고 서민 소득도 늘어나게 된다. ㉣ 또한 자본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고소득층의 해외 소비 활동도 촉진해야 한다. 그리고 세제 개혁을 통한 재분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세제만큼 유효한 재분배 정책 수단도 없다.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부문의 양극화 개선을 위해 경제 체질과 구조 개선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 ① ㉠ - 문맥에 맞도록 '그러나'로 수정한다.
- ② ㉡ - 의미가 통하도록 '아랫돌 빼서 윗돌 괴듯'으로 수정한다.
- ③ ㉢ - 어법에 맞도록 '경원을 사서는'으로 수정한다.
- ④ ㉣ - 문단의 통일성에 어긋나므로 삭제한다.

답) ③. [난이도 중, 쓰기 - 퇴고] - 예상한 문제 유형

겉으로는 가까운 체하면서 실제로는 멀리하고 꺼림칙하게 여기는 것을 '경원시(敬遠視)'라고 한다. 그러므로 '경원시해서'으로 적는 것이 옳다.

미소 유형적중

- 2016 동형 문제다잡기(3~4월 강의): 6회 13번외 다수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몸에 이롭고, 충고하는 말은 귀에 거슬리나 우리의 행동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사람이 바르게 성장하려면 ㉠ 바야흐로 남이 자신에게 충고하는 말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말이다.

㉡ 그러므로 남이 올바르게 충고하는 말은 받아들이기 싫어하면서, 달콤하게 아부하는 말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나에게 아첨하는 말, 나를 공연히 추어올려 주는 말은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 지혜를 기르거나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하는 말을 좋은 약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 ① ㉠은 서술어와의 호응을 고려하여 '모름지기'로 바꾼다.
- ② ㉡은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그러나'로 바꾼다.
- ③ ㉢은 내용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한다.
- ㉣은 문장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 '지혜와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는'으로 바꾼다.

15. ㉠ ~ ㉣을 고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 안긴문장이 주성분으로 쓰이지 않은 것은?

- ① 그 학교는 교정이 넓다.
- ②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학수고대했다.
- ③ 아이들이 놀다 간 자리는 항상 어지럽다.
- ④ 대화가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몰랐다.

답) ③. [난이도 중, 문장의 종류] - 예상한 문제 유형

주성분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등이 있다. ③번 문장은 ‘아이들이 놀다 가다’라는 관형절이 안긴문장이다. 안긴문장은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 ① ‘교정이 넓다’라는 서술절이 안긴문장이다. 안긴문장은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비가 오다’라는 명사절이 안긴문장이다. 안긴문장은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 ④ ‘대화가 어디로 튈다’라는 부사절이 안긴문장이다. 안긴문장은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미소 유형적중

- 2016 동형 문제다잡기(3~4월 강의): 6회 20번
다음 문장을 이용하여 국어 문장 구조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발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ㄱ. 겨울이 가고 봄이 온다.
- ㄴ. 경치가 좋으니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 ㄷ. 나는 네가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
- ㄹ. 주인공이 죽는 장면에서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다.

- ① 위 문장은 모두 겹문장입니다.
 - ② 그런데 $\neg$, $\sim$ 은 한 문장이 다른 문장에 이어진 형태이고, $\supset$, $\Rightarrow$ 은 문장 속에 문장이 안긴 형태입니다.
 - ③ $\neg$ 은 한 문장이 다른 문장에 대등하게 이어져 있고, $\sim$ 은 종속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 $\supset$ 과 $\Rightarrow$ 에서 안긴 문장은 각각 목적어, 부사어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미소 유형적중

- 2016 All-Kill 국어다잡기(1~2월 강의): 60번
다음을 이용하여 국어 문장 구조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였
다. 발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담징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
㉡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 그 사람은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해.

- ① 위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다른 문장 속에 안긴문장입니다.
- ② 그런데, ㉠㉡㉢에서 밑줄 친 부분은 각각 관형어, 목적어, 부사어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 ㉠의 밑줄 친 부분에는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생략된 주어는 ‘담징’입니다.
- ④ ㉡에서는 밑줄 친 부분뿐 아니라 ‘그가 착한’과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도 안긴문장입니다.

17. ㉠~㉢의 밑줄 친 어휘의 한자가 옳지 않은 것은?

- 그는 적의 ㉠ **사주**를 받아 내부 기밀을 염탐했다.
- 남의 일에 지나친 ㉡ **간섭**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 그 선박은 ㉢ **결함**을 지닌 채로 출항을 강행하였다.
- 비리 ㉣ **척결**이 그가 내세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 ① ㄋ - 使嘆
② ㄌ - 間涉
③ ㄘ - 缺陷
④ ㄉ - 剔抉

답) ②. [난이도 중, 어휘 - 한자] - 예상한 문제 유형

‘직접 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함’은 ‘干涉(간섭)’으로 적어야 한다. 간여할 ‘干(간)’에 미칠 ‘涉(섭)’로 구성되어 있다.

미소 적중

- 2016 All-Kill 국어다잡기(1~2월 강의): 678

다음 중 한자의 독음이 바른 것은?

- 跋扈 - 발호
③ 報酬 - 보주
② 這間 - 언간
④ 使噓 - 사족

미소 적중

- 2016 출논문 기출다잡기(11~12월 강의): 23회 10번

다음 한자어의 독음이 바른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收拾(수합), 模倣(모방), 具備(구비), **使噓(사족)**
 ● 過剩(과잉), 軋轢(알력), 錯覺(착각), 邂逅(해후)
 ③ 浮刻(부핵), 督勵(독려), 間接(간접), 因襲(인습)
 ④ 臆測(억척), 甦生(소생), 促進(촉진), 蟄居(침거)

18. 다음 글이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이유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개의 몸에 기생하는 진드기가 있다. 미친 듯이 제 몸을 긁어대는 개를 붙잡아서 털 속을 헤쳐 보라. 진드기는 머리를 개의 연한 살에 박고 피를 빨아 먹고 산다. 머리와 가슴이 붙어 있는데 어디까지가 배인지 꼬리인지도 분명치 않다. 수컷의 몸길이는 2.5밀리미터, 암컷은 7.5밀리미터쯤으로 핀셋으로 살살 집어내지 않으면 몸이 끊어져 버린다.

한번 박은 진드기의 머리는 돌아 나올 줄 모른다. 죽어도 안으로 파고들다가 죽는다. 나는 그 광경을 ‘몰두(沒頭)’라고 부르려 한다.

- 성석제, ‘몰두’ 중에서

- ① 소리는 같지만 뜻은 전혀 다른 두 단어를 의도적으로 혼란스럽게 섞어 사용해서
- ②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사건 대신 아주 엉뚱한 사건을 전개해서
- ③ 묘사하는 대상의 우스꽝스러운 생태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 채 객관적으로 전달해서
- ④ 어떤 단어를 보통 쓰이는 의미 대신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짐짓 받아들여서

답) ④. [난이도 중, 읽기] - 예상한 문제 유형

원래 ‘沒頭(몰두)’는 어떤 일에 온 정신을 다 기울여 열중함을 일컫는다. 그런데 글쓰이는 진드기가 머리를 박은 광경을 ‘沒頭(몰두)’라 부르기로 했다는 것이다. 즉 들어갈 ‘沒(몰)’에 머리 ‘頭(두)’를 써 일상적인 의미 대신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재해석한 것이다.

19. 다음 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 촌에 들어가면 위험하진 않은가요?"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가 또다시 입을 벌렸다.

"월요, 어델 가든지 조금도 염려 없체다. 생번이라 하여도 요보는 온순한 데다가, 가는 곳마다 순사요 헌병인데 손 하나 꼼짝할 수 있나요. 그걸 보면 데라우치 상이 참 손아귀 힘도 세지만 인물은 인물이야!"

매우 감격한 모양이다.

"그래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할 것이야 많지요. 어델 가기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요새 돈 몰 것이 꼭 하나 있지요. 자본 없이 힘 안 들고……. 하하하."

표독한 위인이 충동이는 수작이다.

… (중략) …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그 불쌍한 조선 노동자 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과 광산으로 몸이 팔리어 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잡 부랑배의 술중(術中)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나는 다시 한 번 그자의 상판대기를 치어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 염상섭, '만세전' 중에서

- ① 작품 밖의 전지적 서술자가 일어난 사건의 전말을 전달하고 있다.
- ②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른 인물을 관찰하며 평가하고 있다.
- ③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관찰자가 되어 등장인물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 ④ 작품 속의 서술자가 작품 밖의 서술자와 교차하며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답) ②. [난이도 중, 현대소설] - 예상한 문제 유형

'만세전'은 전체적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지만 인용된 부분은 식민지 시대에 일본인들의 대화를 곁에서 듣고 있는 부분이다. 작품 속에 내가 그들(일본인)의 대화를 듣고 그에 대한 느낌을 적은 것이다. 즉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인 '나'가 다른 인물(일본인)을 관찰하고 평가한 1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한다.

- ① 전지적 작가 시점
- ③ 작가 관찰자 시점

20. 다음 글을 근거로 할 때, <보기>의 대화에서 ㉠의 대답이 갖는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라이스(Grice)는 원활한 대화 진행을 위한 요건으로 네 가지의 '협력의 원리'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주고받는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는 양의 격률이다. 둘째, 진실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증거가 불충한 것은 말하지 말라는 질의 격률이다. 셋째, 해당 대화 맥락과 관련되는 말을 하라는 관련성의 격률이다. 넷째,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라는 태도의 격률이다. 그러나 모종의 효과를 위해 이 네 가지의 격률을 위배하는 일은 일상 대화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연중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협력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 경우도 많다.

<보 기>

대화(1) ㉠: 체중이 얼마나 되니?

㉡: 55 kg인데 키에 비해 가벼운 편입니다.

대화(2) ㉠: 얼마 전 시민 운동회가 있었다며?

㉡: 응. 백 미터 달리기에서 비행기보다 빠른 사람을 봤어.

대화(3) ㉠: 너 몇 살이니?

㉡: 형이 열일곱 살이고, 저는 열다섯 살이지요.

대화(4) ㉠: 점심은 뭐 먹을래?

㉡: 생각해 보고 마음 내키는 대로요.

- ① 대화(1) : 관련성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 ② 대화(2) : 질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 ③ 대화(3) : 양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 ④ 대화(4) : 태도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답) ①. [난이도 중, 말하기-대화] - 예상한 문제 유형

체중을 물었으므로 55kg이라는 정보만 말하면 되는데, 키에 대한 것도 언급했으므로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는 '양의 격률'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

총평 :

2016년 국가직 시험은 작년과 같이 지극히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공부한 학생과 공부하지 않은 학생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국어규범과 관련된 것이 5문항 출제되어 작년보다 1문항 줄었다. 구체적 영역은 외래어 표기, 보조사, 띄어쓰기, 표준어, 문장의 종류 등이다. 수업시간에 모두 다룬 내용이라 까다로운 문제는 없었다. 앞으로도 수험생들은 국어문법을 중심으로 한 규범을 세밀하게 정리해두는 학습태도가 필요하다.

읽기와 쓰기는 작년보다 2문제 많은 5문제가 출제되었다. 지문은 짧고 평이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수업 시간에 강조했듯이 평소에 생소한 지문을 지속적으로 읽는 습관을 들인다면 이 영역은 쉽게 정복할 수 있다.

문학은 기형도의 ‘엄마 걱정’, 천상병의 ‘귀천’, 이규보의 ‘경설’, 염상섭의 ‘만세전’ 등 4문제가 출제되었다. 모두 익숙한 작품으로 문학의 기초 감상법을 충실히 익힌 사람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사려된다. 수험생은 이 작품을 배웠다 배우지 않았다고 접근하는 학습법을 버리고 영역에 따른 기초 감상법을 충실히 익혀 어떤 작품이 출제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어휘는 작년과 같이 4문항이 출제되었다. 한자성어와 한자, 순우리말과 한자어 등 고르게 출제되었다. 수업시간에 모두 다룬 어휘가 출제되어 그리 체감 난도는 어렵지 않았다. 평소에 지속적으로 어휘량을 늘리는 학습법을 권하고 싶다.

예년과 달리 말하기 영역이 2문제 출제되었는데, 새로운 문제 유형이라 할 수 있지만 독해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 새롭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사려된다.

결론적으로 2016년 국가직 시험은 수험생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한자가 출제되었으나, 익숙한 한자라 그리 까다롭지 않아 체감 난도는 아주 낮은 시험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난도 상인 문제는 없었다. 난도 중인 문제가 16문제, 난도 하인 문제가 4문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최상위권 학생들은 만점을 맞아야 하며, 실수를 감안하더라도 국어 점수는 95점 정도는 나와야 하는 정말 쉬운 시험으로 분석된다.

[미소 강경욱 선생의 강의계획]

- 강좌명 : **나눔캠프 시즌 1 - 100원 특강! 고전문법 다잡기**
 - 시간 : 4월 25일 14:00~17:50 (선착순 마감)
- 강좌명 : **2016 지방직/서울시 Final 동형 문제다잡기 (8주 완성)**
 - 시간 : 수 14:00~17:50 (4/27개강)
 - 교재 20회 + 염선 동형모의고사 14회 (총 34회 해결)
- 강좌명 : **서울시 지식국어 문제풀이(4주 완성)**
 - 시간 : 월 14:00~17:50 (5/9개강)
 - 서울시 문제를 위한 특별 강좌
- 강좌명 : **9급/7급 미소국어 이론 완성반(2개월 완성)**
 - 시간 : 월화 09:00~12:50 (5/9개강, 1권, 2권)
목 14:00~17:50 (3권)
- 강좌명 : **2016 7급 All-Kill 예상문제 다잡기**
 - 시간 : 화 14:00~17:50 (5/10개강, 8주완성)
 - 단원별 핵심 예상문제 해결 (총 1000문제 해결)
- 강좌명 : **콕콕찍어주는 품사/ 표준발음/ 띄어쓰기/ 자연스러운 문장**
 - 시간 : 목 09:00~12:50 (5/12개강, 4주완성)